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정미¹, 백진아^{2*}

¹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²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 of Job Stress on Psychological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ng-Mi Kim¹, Jina Paik^{2*}

¹Lecturer in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자료를 중심으로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의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심리적 소진, 경로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job stress on psychological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two variables. For the study, the data collected from 520 teachers working in day-care center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areas were analyzed by utilizing the path analysis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ob stress of childcare teache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psychological burnout, but i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self-esteem. Second, self-esteem of childcare teachers influenced negatively their psychological burnout. Third, job stress of childcare teachers directly affected psychological burnout and its effect was indirectly mediated by their self-esteem.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the need to reduce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and to enhance self-esteem was suggested.

Key Words : Childcare Teacher, Job Stress, Self-Esteem, Psychological Burnout, Path Analysis

1. 서론

현대사회에서 급속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가족역할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특히 가족의 고유기능으로 여겨왔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시

화되면서 양질의 보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가정내 자녀양육 기능의 약화에 따라 보육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1]로 인지하여 지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보육의 공공성 확충방안과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This article is revised of doctoral dissertation of Joung-Mi Kim(2016)

*Corresponding Author : Jina Paik(jpaik1@hanafos.com)

Received December 29, 2017

Accepted March 20, 2018

Revised February 19, 2018

Published March 28, 2018

보육서비스 제공 등 보육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1990년 말 1,919개소였던 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41,084개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1,451,215명, 보육교사의 수는 321,766명에 달한다[2].

보육교사의 양적 팽창은 보육의 중요성과 함께 필요성을 요구하였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의 발전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 향상 서비스 등을 통해 보육제도와 정책 등이 획기적으로 변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3]. 그러나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은 다른 직업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률과 업무과중에 따른 보육의 질 악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보육교사의 근로환경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4].

직무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서, 직업인의 경우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서비스 대상이 성인이고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의 경우와 구별된다. 보육교사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연령이 낮은 영유아, 학부모, 함께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을 포함한다는 점과 영유아에게 발달단계별 지식과 기술을 체득시키는 것 외에 기본적인 생활습관, 가치관 형성 등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 및 안내자 역할까지 다양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5]. 이런 점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업무와 인간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정서로[6] 정의된다.

보육교사는 다양한 역할의 중첩과 변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다. 영유아와 관련된 활동외에도 동료 및 선후배교사, 원장, 학부모 등과의 대인관계, 교구교재 개발 및 실행, 환경구성, 행정업무, 학습준비, 정기·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원내 장학 및 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7]. 더욱이 최근에 불거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문제로 인해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져 불안과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과중한 직무스트레스는 업무집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순히 영유아나 학부모, 동료교사 등 인간관계 측면 뿐 아니라 육체적·정서적·사회적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8]. 이로 인해 상당수의 보육교사들이 심리적 소진에 노출되어 있다.

심리적 소진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9]를 의미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장기간 내재된 정서적 압박의 결과[10]로 나타난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성된 스트레스가 소화(宵火)되거나 감소되지 않고 누적되면, 생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나는 ‘소진’의 원인이 된다[11]. 스트레스의 누적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소진은 신체적, 행동적, 정신적 증상을 수반하는 하나의 증후군이다[12].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소진의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인식된다[13].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에 따른 성과와 직무만족 더 나아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7]. 특히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한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보이지만, 그로 인해 아동의 교육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로 인식된다. 이렇듯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에게 있어서 어린이집의 근무 환경은 반복되는 하루일과 속에서 과도한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한다. 가중된 직무스트레스를 배제하고 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심리적 소진 상태가 되지 않도록 직무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무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보육교사의 심리적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한 보호요인을 통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매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14]. 보호요인이란 취약한 환경적 유해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말한다.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 보호요인 가운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사랑받고 존경할 만하며 존재가치가 있고 유능하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15]. 보육교사의 자질 중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인인 자

자아존중감은 자아유능감, 자아안정감, 자신감, 자기존경, 긍정적 자아평가, 자기수용 등과 비슷한 의미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16]. 보육교사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능력과 가치에 대한 평가가 타인에 대한 자기행동양식과 태도를 결정하게 하기 때문이다[17]. 이는 보육교사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8].

보육교사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을 경감하는 역할을 통해서 스트레스의 연장선에 있는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다[19]. 스스로 능력 있고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자아존중감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감이 저하되어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업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중된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을 촉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16].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피해의식과 고립감속에 폐쇄적인 감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영유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중의 하나는 하루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보육교사이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보육교사는 직무에 대한 열의,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영유아에 대한 애정으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양질의 보육에 대한 계획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심리적 소진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및 이직의도와 의 관계, 직무만족, 심리적 소진,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20-24] 등 개별적인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매개로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출산과 양육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문제 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을 지향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경감하는데 효과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아존중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보육교사 520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인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기존 개발도구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검증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대학에서 아동, 보육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수 3인과 어린이집 원장 5인, 보육교사 5인 총 13명이었다. 전문가의 검증과정을 통해 문항에 대한 이해와 연구자가 의도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질문문항을 보완한 후, 520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를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전에 유선으로 원장의 협조를 구한 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활용, 설문 내용 및 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조사 진행과정 중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과 익명성 보장을 약속한 후, 이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방문을 통해 수거하거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받았다. 배포된 520부중 492부(95%)가 회수되었으나 일률적으로 동일한 답이 표기된 자료와 표기가 누락된 자료 11부를 제외하고 최종 48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직무스트레스 척도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Clark[25]가 개발하고 D'Arenzo[26]이 수정한 직무스트레스 문항을 권기태[27]가 번안하고 이명화[28]가 사용한 도구와 신혜영[29]이 제작하고 백영숙[30]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질문 문항은 총 35문항으로 이명화[28]의 연구에서 원아들과의 활동(5문항), 업무관련(5문항), 행정적 지원(7문항), 학부모 관련(5문항), 개인관련(5문항) 등 5개 하위요인에서 27문항, 백영숙[30]의 도구에서 원장 및 교사 관련(8문항) 등 총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질문문항은 '부적응 영유아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업이외의 잡무가 많다', '교사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교사 간에 갈등이 많다', '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값은 .927로 나타났다.

2.2.2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5]가 개발하고 전병재[31]가 번안하였으며 유명미[32]가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은 총 10문항으로 긍정자아(5문항), 부정자아(5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 내용은 '나에게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스로를 지금보다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alpha값은 .850이다.

2.2.3 심리적 소진 척도

심리적 소진 척도는 Maslach & Jackson[11]이 개발하고 이민선[33]이 사용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척도의 질문 문항은 총 22문항으로 정서적 고갈 관련(9문항), 비인간화 관련(5문항), 성취감 감소 관련(8문항) 등 3개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나는 일 때문에 정서적으로 고갈된 느낌이 든다', '나는 이 일이 나를

정서적으로 무디게 할까봐 걱정이다', '나는 영유아의 감정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등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인 소진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심리적 소진의 Cronbach's alpha값은 .877이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수간의 인과관계 검증 및 자료 분석을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기술통계 및 각 변수들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하였고,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구조모형분석을 검증하였다. 셋째, 효과분해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보육교사' 7명(1.5%), '여자보육교사' 474명(98.5%)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연령대는 '31~40세' 159명(33.1%), '21~30세' 153명(31.8%), '41~50세' 146명(30.4%), '51세 이상' 23명(4.8%)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이 182명(3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 119명(24.7%), '가정어린이집' 116명(24.1%)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서울형' 37명(7.7%), '직장어린이집' 13명(2.7%), '기타' 14명(2.9%) 이 소수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148명(30.8%), '3년 이상 5년 미만' 138명(28.7%),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1명(21%), '1년 미만'은 25명(5.2%)로 나타났다. 담당 영·유아연령의 경우 '만 1세' 반 125명(26.0%), '만 2세' 반 125명(26.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만 3세'반 79명(16.4%), '만 4세'반 59명(12.3%), '1세 미만' 반 55명

(11.4%), '만 5세' 반 38명(7.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절반 정도가 '만 1-3세'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학력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242명(50.3%), '대졸' 151명(31.4%), '고졸' 54명(11.2%), '대학원 석. 박사 졸업' 28명(5.8%), '기타' 6명(1.2%) 순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보육교사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보육교사 자격취득 경로의 경우 '전문대학'이 164명(34.1%)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다음은 '보육교사 교육원' 112명(23.3%), '대학교' 97명(20.2%), '학점은행제' 55명(11.4%), '사이버대학' 53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Variable | Division | N(%) |
|---------------------|---|------------|
| Gender | Male | 7(1.5) |
| | Female | 474(98.5) |
| Age | 21-30 years old | 153(31.8) |
| | 31-40 years old | 159(33.1) |
| | 41-50 years old | 146(30.4) |
| | From over 51 years old | 23(4.8) |
| Type | Home childcare | 116(24.1) |
| | Private daycare center | 182(37.8) |
| | National daycare center | 119(24.7) |
| | Work daycare center | 13(2.7) |
| | Seoul type / Public Type | 37(7.7) |
| Career | Etc | 14(2.9) |
| | Less than 1 year | 25(5.2) |
| | 1year ↑ - 3 years ↓ | 148(30.8) |
| | 3year ↑ - 5 years ↓ | 138(28.7) |
| | 5year ↑ - 10 years ↓ | 101(21.0) |
| Child age in charge | from over 10 years | 69(14.3) |
| | under 1 year old | 55(11.4) |
| | 1 year old | 125(26.0) |
| | 2 year old | 125(26.0) |
| | 3 year old | 79(16.4) |
| Education | 4 year old | 59(12.3) |
| | 5 year old | 38(7.9) |
| | High school graduation | 54(11.2) |
| | College graduation | 242(50.3) |
| | University graduation | 151(31.4) |
| Qualification path | Graduate school graduation (Include Master and PhD) | 28(5.8) |
| | Etc | 6(1.2) |
| | Childcare teacher education center | 112(23.3) |
| | Credit banking system | 55(11.4) |
| | Cyber University | 53(11.0) |
| Total | College | 164(34.1) |
| | University | 97(20.2) |
| | Total | 481(100.0) |

3.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 Variable | M(SD) | Skewness | Kurtosis |
|-----------------------|-----------|----------|----------|
| Job Stress | 2.62(.59) | -.012 | .133 |
| Self Esteem | 3.85(.53) | -.401 | -.331 |
| Psychological Burnout | 2.17(.51) | .229 | .443 |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의 평균값은 2.62(표준편차는 .59), 자아존중감 평균값은 3.85(표준편차는 .53), 심리적 소진의 평균값은 2.17(표준편차는 .51)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높은 데 반해 심리적 소진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검증과 관련하여,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심리적 소진의 변수들은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측정모형의 경로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 Variable | Job Stress | Self Esteem | Psychological Burnout |
|-----------------------|------------|-------------|-----------------------|
| Job Stress | 1 | | |
| Self Esteem | -.121** | 1 | |
| Psychological Burnout | .606*** | -.342*** | 1 |

** p<.01, *** p<.001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관계수는 .606이고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는 -.121이었다.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소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342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3.3 연구모형 검증분석 결과

3.3.1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먼저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매개 변수로 설정한 초기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173.784$, $p=.000$, $GFI=.938$, $RMR=.026$ 으로 기준치에 적합하게 나타난 반면 $RMSEA=.082$ 로 기준치에 부적합하게 나왔다. 따라서 수정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beta =-.173$, $p<.005$),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경로($\beta=.738$, $p<.005$),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경로($\beta=-.411$, $p<.0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모형의 적합도가 부적합하게 나타났으므로 모형의 적합도가 증대될 때까지 수정모형을 탐색하였다. 최종 수정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Fig. 1과 같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chi^2=136.168$, $p=.000$, $GFI=.950$, $RMR=.023$, $RMSEA=.072$ 등의 값을 나타내어 적합한 모형이 이루어진 것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 Goodness-of-Fit Statistics

| | χ^2 | df | p | RMR | GFI | RMSEA |
|---|----------|----|------|------|------|-------|
| 1 | 173.784 | 41 | .000 | .026 | .938 | .082 |
| 2 | 136.168 | 39 | .000 | .023 | .950 | .072 |

1: First model, 2: Final model

Table 5. Modified Structure Model

| | Path | Standardized | Unstandardized | S.E. | C.R. |
|-----------------------|------------------------------------|--------------|----------------|------|--------|
| Job Stress | -> Self Esteem | -.185 | -.145 | .049 | -2.933 |
| Self Esteem | -> Psychological Burnout | -.387 | -.606 | .093 | -6.547 |
| Job Stress | -> Psychological Burnout | .769 | .939 | .077 | 12.226 |
| Job Stress | -> Personal-related | .675 | 1 | | |
| Job Stress | -> Parent-related | .611 | .955 | .080 | 11.881 |
| Job Stress | -> Directors & Teacher-related | .627 | 1.022 | .086 | 11.920 |
| Job Stress | -> Administrative Support | .826 | 1.323 | .087 | 15.228 |
| Job Stress | -> Business-related | .769 | 1.139 | .079 | 14.489 |
| Job Stress | -> Child Activity | .651 | .919 | .073 | 12.576 |
| Self Esteem | -> Positive Self | .619 | 1 | | |
| Self Esteem | -> Negative Self | .775 | 1.222 | .184 | 6.628 |
| Psychological Burnout | -> Emotional Exhaustion | .773 | 1 | | |
| Psychological Burnout | -> Non-humanization | .171 | .187 | .056 | 3.357 |
| Psychological Burnout | -> Reduced Sense of Accomplishment | .607 | .561 | .047 | 11.979 |

*** $p<.001$

분석결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심리적 소진 간에 경로계수가 모두 $p<.01$ 로 유의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심리적 소진 간에 최종 3개의 경로가 설정되었으며 이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 심리적 소진($\beta=.769$), 직무스트레스 → 자아존중감($\beta=-.185$)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 개인관련($\beta=.675$), 직무스트레스 → 학부모관련($\beta=.611$), 직무스트레스 → 원장 및 교사관련($\beta=.627$), 직무스트레스 → 행정적 지원($\beta=.826$), 직무스트레스 → 업무관련($\beta=.769$), 직무스트레스 → 원아활동($\beta=.651$)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 심리적 소진($\beta=-.387$)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 심리적 소진($\beta=-.387$), 자아존중감 → 긍정적 자아($\beta=.619$), 자아존중감 → 부정적 자아($\beta=.775$)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은 높아지는 반면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2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구조방정식모형에 제시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769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85) \times (-.387) = .072$ 이며, 총효과는 0.841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간접효과의 확인은 자아존중감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을 통한 내적자원의 강화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 Path | Direct Effect |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 |
|--|---------------|-----------------|--------------|
| Job Stress→ Self Esteem | -.185 | | -.185 |
| Self Esteem→ Psychological Burnout | -.387 | | -.387 |
| Job Stress→ Psychological Burnout | .769 | .072 | .841 |

이상의 효과분해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변수간의 매개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자아존중감→심리적 소진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간접효과=0.072, $p < 0.05$)를 보임으로써 자아존중감이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변수임이 검증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및 심리적 소진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20]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심리적 소진 역시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미용실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이직을 분석한 연구결과[34]와도 일치함을 보였다. 보육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보육교사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유발하여 자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계기가 되지만, 잠무과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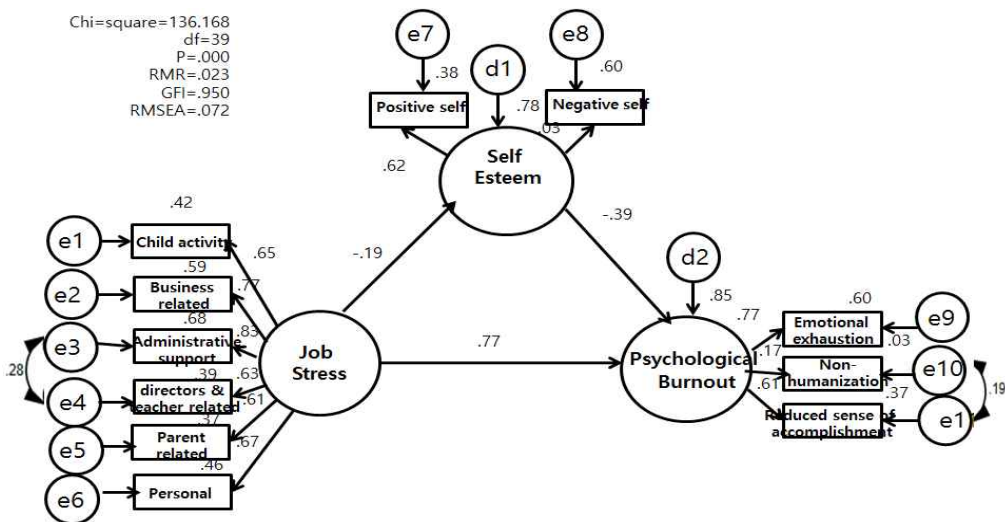


Fig. 1. Modified Structure Model

수업자료 및 행정적 지원의 부족, 동료교사 및 원장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가져올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으로 가는 원인이며 과정이다. 장기간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정신건강 뿐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해를 끼쳐 정상적으로 보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보육교사로서의 좌절감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심리적 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노력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직무스트레스는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35].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신을 중요하거나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보육교사가 업무나 대인관계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집중력이 낮아지고 무력감과 정서적인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를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자학하기 쉽고 결과적으로 보육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방해받게 된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상황대응능력의 결여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횟수가 감소되는 등 질 낮은 수업을 진행한다는 연구결과[36]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업무관련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교구교재 및 수업자료 준비와 수업 이외의 잡다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보조교사 또는 행정교사의 충원과 적절한 원아 수의 학급운영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사회에서 부모를 대신해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높은 자존감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조한다[37]. 보육교사에게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보육교사의 삶의 질이 저하되어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보육교사는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청된다.

넷째, 자아존중감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사이에서 매개효과(간접효과=.072, $p < 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의 결과로 이어지는 소진의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소진을 경감시켜 주는 중요한 내적 변인으로 작용한다[38].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게 되면 유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 높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의 연장선에 있는 심리적 소진 역시 경감시킬 수 있다[19]. 그러나 낮은 자아존중감은 수업진행에 있어서 영유아들과 부적절한 상호작용 등으로 질 낮은 수준의 수업 상황을 초래하며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심리적 소진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다[16].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에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원인이 되는 직무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육교사를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randen[39]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강력한 욕구는 자아존중감이며 부족할 경우 심리적 성장장애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현실과 이상을 상호조화롭게 연결시켜가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인이다[17].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소진을 경험한다. 개인이 경험하는 소진의 정도는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변인이 자아존중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를 낮춰 심리적 소진의 발생비율을 감소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자신을 가치있고 소중한 사람임을 아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수 간에서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자아존

중감, 심리적 소진 세 변수 간의 관계를 입증하고, 문제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의 중요성과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긍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보육현장에서 드러나는 양질의 보육교사 수급상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보육교사들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줄여 심리적 소진을 경감할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과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에 따라 또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보육교사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수준도 차이가 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을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로 한정시켜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육교사 전체에 대한 논의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관련된 변수 구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로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보다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종합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통계분석에 집중함으로써 실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소진의 실제적인 경험과 내용, 구체적인 맥락 등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설립 유형에 따른 내용상의 차이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표집으로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지능과 같이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 등을 포함한 상세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나아가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넘어 연구대상자들의 생생한 자기 체험과 목소리에 기반하여 전체적인 심리적 소진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병행도 필요하다.

REFERENCES

[1] M. N. Yoo & N. R. Shin. (2013). Childcare Teachers Work-Related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Life-Span*

Studies, 3(2), 73-85.
 [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ttp:// www.mohw.go.kr](http://www.mohw.go.kr).
 [3] S. H. Paik. (2011). *Study on Policies for Reinforcing the Publicness of Childcare*.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4] S. H. Bae, Y. H. Kim & S. Y. Han. (2014). Effects of Job Stress, Ego-Resilience and Burnout on Teacher's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8(1), 234-258.
 [5] T. J. Park. (2016). *Effects of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child care teachers: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 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Gwangju.
 [6] Kyriacou. C. & Sutcliffe. J. (1978). Teacher Stress Prevalence, Source and Symptom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8(2), 159-167.
 [7] J. M. Kim & J. M. Jun. (2016). Type of Facility Performing the Role of Child Care Teacher, Job Stress, and Differences in the Job Satisfaction, the Influence of Job Stress on the Job Satisfac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3), 89-108.
 [8] Y. H. Kim, M. S. Yang & H. R. Park. (2015). A Study on a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1), 291-301.
 [9] Freudenberger. H.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0, 159-165.
 [10] H. M. Yoon & B. K. Park. (2004).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of Korean 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3), 279-301.
 [11] Maslach. C. & Jackson. S.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2, 99-113.
 [12] S. R. Seo. (1995). *Study on the job burnout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ccording to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Master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Seoul.
 [13] Y. M. Kim & Y. Y. Park. (2008). The Effects of Music Therapis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elf-Efficacy on Burnout.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6(1), 13-20.
 [14] J. E. Yoo. (2002). Influence of Occupational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Burnout in Korea.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5(2), 315-328.
 [15]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6] S. H. Park. (2015). Relationships among Aptitude for Teaching Profession, Self-esteem, and Teaching Efficacy in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9(2), 211-242.
- [17] S. Y. Lee & J. S. Lee. (2016). The Convergent Effect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in Femal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335-344.
- [18] J. H. Han. (2014). The Impact of Self-Esteem and Professional Recognition o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4), 271-287.
- [19] H. I. Hwang, J. H. Tak, H & M. Kang.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Teachers' Burnout and Their Self-esteem in High and Low Resilience Group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4), 31-52.
- [20] S. M. Kwon. (2011).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Kindergarten and Preschool Teachers o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5), 313-333.
- [21] H. S. Yoo. (2013). *Structural relations among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teacher 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22] H. M. Yoon & P. S. Noh. (2013). Relationship of Work Stress, Career Commitment,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Educare-Teac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6, 157-184.
- [23] G. E. Jung & Y. H. Park. (2015). Teacher Education and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Job Stress, Ego-Resilie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5(1), 367-382.
- [24] S. K. Park. (2017). *The effect of child care teacher's job stress on burnout*. Doctoral dissertation. Woosuk University, Wanju.
- [25] E. H. Clark. (1980). *An analysis of occupational stress factors as perceived by public school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Auburn University, Alabama.
- [26] R. D' Arengo. (1981). *Stress in teaching: a comparison of perceived occupational stress factors between special education and regular classroom teacher*. Doctoral dissertation. Auburn University, Alabama.
- [27] K. T. Kwon. (1990). *A study on the occupational stress and methods of coping of coping with stress among teachers*.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28] M. H. Lee. (2002). *Occupation stress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the methods to coping the stress*.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29] H. Y. Shin. (2004). *Effects of teachers' job stress and belief of efficacy on the quality of teachers' interaction behaviors in child care*.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30] Y. S. Beck. (2013). *A study on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ly environ-mentally protective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teachers'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s*.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31] B. J. Jon.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延世論叢*, 11(1), 107-124.
- [32] Y. M. Ryu. (2015).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on self-esteem,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33] M. S. Lee. (2015).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ltiple-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married child care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Paichai University, Daejeon.
- [34] E. J. Yoo, S. N. Shim & S. K. Kim. (2014). The Effect of the Beauty Salon Worker's Emotional Labor, Job Stress, Job Burnout and Social Support on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427-439.
- [35] J. J. Go. (2009). A Study on the Job Stressor during Teachers' Duties Affecting the Stress at Work and The Intermediate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4), 247-268.
- [36] J. A. Mum & H. J. Kim. (2005). The Teacher-Child Interaction According to the Full-Day Kindergarten Teacher Occupational Stress. *幼兒教育研究*, 25(5), 75-101.
- [37] I. I. Lee & J. H. Kim. (2011). The Effects of Maum Meditation on Anxiety, Self-Esteem and Self-Actualization of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2), 5722-5730.
- [38] K. O. Seol & J. I. Lim. (2013). Collective Self-Esteem, Calling and Burnout Among Youth Companion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2), 187-201.
- [39] N. Branden. (1992). *The Power of Self-Esteem*. Deerfield Beach Florida: Health Communications. Inc.

김 정 미(Kim, Joung Mi)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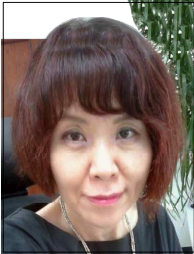


- 2007년 2월 : 국제사이버대학교(문학사)
- 2009년 8월 : 성균관대학교 보육경영학과(보육학석사)
- 2017년 8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국제사이버대학교 강의
- 2016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강의
- 관심분야 : 아동, 가족, 여성
- E-Mail : kjmk11@naver.com

백 진 아(Paik, Jina)

[정회원]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사회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 E-Mail : jpaik1@hanafos.com